

한국어 다의동사의 표상

신 현 정 최 미 영 최 민 경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어 다의동사의 의미들이 심성어휘집에 개별적으로 표상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일 핵심의미로 표상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실험을 수행하였다. 서로 무관한 의미(meaning)들을 가지고 있는 동철동음 동사(homonymous verb)와 관련 의의(sense)들을 가지고 있는 중다의미 동사(polysemous verb)들을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실험 1에서는 다의동사를 특정 의미로 처리하는 것이 다양한 맥락에서 그 동사를 재인하는 데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실험 2에서는 다의동사의 특정 의미를 접화시키는 것이 그 동사를 동일한 의미나 상이한 의미로 해석하도록 편향시킨 표적구절의 의미성 판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험 1의 결과는 다의동사의 의미들이 모두 심성어휘집에 개별 항목으로 표상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반면에, 실험 2는 중다의미 동사가 단일 핵심의미로 표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내놓았다. 실험재료와 방법론상의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동철동음 동사는 개별 항목들로 표상되는 반면, 중다의미 동사는 핵심의미를 중심으로 표상되어 있을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의어 표상연구에서의 개념적·방법론적 문제점을 선행연구들과 연관시켜 논의하였으며,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동철동음 동사, 중다의미 동사, 심성어휘집, 어휘표상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4-HS1002).
원고를 꼼꼼하게 읽고 많은 조언을 해준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교신저자: 신 현 정, (609-735)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E-mail: hjshin@pusan.ac.kr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이 의미상 다의적이며, 둘 이상의 개념을 참조하고 있다. 예컨대, *사과*는 과일의 한 종류이거나 용서의 요청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의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포함된 맥락에 근거하여 한 가지 해석을 선택해야만 한다. 어휘다의성(또는 어휘중의성 lexical ambiguity)은 모든 자연언어에서 예외가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능력은 우리의 언어처리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Rodd, Gaskell, & Marslen-Wilson, 2002).

지난 20여년에 걸쳐서, 어휘다의성 처리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언어처리시스템의 단원적 특성 대 상호작용적 특성에 관한 물음에 결정적 답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예컨대, Fodor, 1983; McClelland, 1987). 한편으로는 다의어의 모든 의미들이 맥락에 관계없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누적되어온 반면에(예컨대, Onifer & Swinney, 1981; Seidenberg, Tanenhaus, Leiman, & Bienkowski, 1982; Swinney, 1979; Tanenhaus, Leiman, & Seidenberg, 1979 등), 다른 한편으로는 다의어 의미의 활성화 패턴이 상호작용적 언어처리시스템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어왔다(예컨대, Paul, Kellas, Martin, & Clark, 1992; Simpson, 1981; Simpson & Kreuger, 1991; Tabossi, 1988a 등). 오랜 세월이 걸쳐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왔으나, 아직도 이 논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연구방법인 어휘판단과제나 명명과제 이외에도, 안구운동 추적법(Duffy, Morris, & Rayner, 1988), 자기속도 읽기법(Martin, Vu, Kellas, & Metcalfe, 1999), 전기생리적 기록법(Van Petten & Kutas, 1987)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어휘다의성 해소에서 맥락의 역할에 관한 논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Binder & Rayner, 1998; Kellas & Vu, 1999). 최근에는 다의성 해소에서 어휘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절충적 모형들도 제안되어왔다(김체리와 신현정, 1996; 정운심과 신현정, 1992; Martin 등, 1999; Rayner, Pacht, & Duffy, 1994).

그런데 어휘다의성 해소 연구는 세 가지 측면을 무시하고 진행되어온 경향이 있다. 첫째, 어휘다의성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심리학 연구에서는 모두 *다의적(ambiguous)*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서 사용해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예컨대, Hino & Lupker, 1996). 전통적으로 언어학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다의성을 구분하여왔다(예컨대, Cruse, 1986; Lyons, 1981). *사과*와 같은 동철동음어(homonym)는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들은 지극히 우연히 동일하게 표기되고 발음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표기는 동일하지만 발음이 달라지는 동철어(homograph)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표기가 달라지는 동음어(homophone)도 존재한다. 예컨대, 눈(眼)과 눈(雪)은 동철어이며,¹⁾ 서경(西京) 또는 書經과 석영(石英)은 동음어의 예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철동음어는 서로 다른 의미가 동일한 표기와 음운 표상으로 수렴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확산됨으로써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자를 병행하는 한국어에서는 상이한 한자를 동일하게 발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동철동음어들이 존재한다.

1) 눈(眼)은 단모음으로 발음하고 눈(雪)은 장모음으로 발음하여 구분하며, 국어사전에서도 둘을 구분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수의 서울 토박이를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이 단모음과 장모음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오늘날 일반인의 한국어 사용에서는 동철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반면에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둘 이상의 의미들이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예컨대, *썩다*라는 동사는 “사과를 썩다”, “수염을 썩다”, “말건 값을 썩다”, 또는 “체면을 썩다” 등과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썩다*의 의미가 체계적으로 달라진다. 그렇지만 그 의미들은 무엇인가를 떨어내거나 제거한다는 면에서 의미상으로는 어원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둘 이상의 의의(sense)를 표상하고 있는 단어를 중다의미어(polysemy)라고 부른다.²⁾ 우리가 사용하는 사전에서는 동철동음어를 별개의 항목으로 다루며, 중다의미어를 동일 항목 내에서 다양한 의미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왔다. 만일 두 유형의 다의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어휘다의성 해소 연구들의 결과는 재해석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둘째, 연구들이 단원성 대 처리과정이라는 뜨거운 논제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다의어가 심성어휘집에 어떻게 표상되어 있느냐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왔다(Gerrig, 1986). 동철동음어가 심성어휘집에 별개의 어휘항목(lexical entry 또는 lexeme)으로 표상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상당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Levett, 1989 참조). 그러나 중다의미어의 표상에 대해서는 분리표상과 단일표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경험 연구들도 많지 않다.

언어학자인 Nunberg(1979)는 중다의미어의 모

2) 영어에서는 동철동음어의 상호 무관련된 의미를 *meaning*으로, 중다의미어의 상호관련된 의미를 *sense*로 표현하여 구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철동음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meaning)와 중다의미어의 의의(sense)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든 의의들이 심성어휘집에 독자적으로 표상될 수는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화용론적 원리들이 작동하여 단어의 핵심의미로부터 관련의미들이 유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다의미어는 핵심의미(core meaning)로만 표상되는 것이며, 다의적 확장은 화용론 및 가능한 추론에 근거하여 생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다의미어의 각기 다른 의의들이 모두 표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맥락정보에 근거하여 계산된다고 본다. 심지어는 중다의미어 뿐만 아니라 동철동음어조차도 단일한 핵심의미만이 표상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uhl, 1989). 이 주장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핵심의미이며 무엇이 유도된 의미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Zgusta, 1971).

한편 중다의미어의 표상이 동철동음어의 표상과 다를 이유가 없다는 주장들도 제기되어왔다. 이 입장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의의들이 별도의 어휘항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수의 의의들이 개별적으로 표상되는 것인지, 어느 의의가 핵심의미로 작동하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 하나의 의의가 독립된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지 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많은 언어학자들은 중다의미어의 단일 핵심의미만이 표상되거나 가능한 모든 의의들이 표상되기보다는 적정 수의 의의들만이 표상될 것이라는 절충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견해를 검증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는 거의 없는 상태다(Deane, 1988; Rice, 1992; Tuggy, 1993).

중다의미어의 단일 표상과 다중 표상의 문제를 다룬 심리학적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Williams(1992)는 동철동음어가 제시되면 맥락무관 의미의 활성화가 신속하게 소멸되거나 억제되는 반면에, 중다의미어에서는 맥락무관 의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활성화 상태를 유

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는 이 결과를 중다의미어의 의의들이 동철동음어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표상되어있지 않다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Murphy와 그의 동료(Klein & Murphy, 2001; Murphy, 1997)들은 중다의미어의 표상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나, 두 연구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Murphy(1997)는 한 단어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의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의의 그리고 관련 정도가 낮은 의의를 새롭게 구성하여 실험참가자에게 제시하였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잘 이해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중다의미어의 의의들이 맥락 속에서 새롭게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모든 의의들이 미리 저장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핵심의미 견해를 지지한다. 한편 Klein과 Murphy(2001)는 다섯 개의 접화실험을 통해서 중다의미어가 심성어휘집에 핵심의미로 단일 표상된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중다의미어를 특정한 의의로 사용하게 되면, 그 단어를 동일한 의의로 사용하는 구절의 이해를 촉진시키며 좋은 기억단서로 작용하는 반면, 다른 의의로 사용하는 구절의 이해를 억제하며 기억단서로서의 효과가 없었다. 이 결과는 동철동음어에서 얻어지는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셋째, 어휘다의성 해소과정을 다룬 거의 모든 연구들은 보통명사들을 실험자료로 사용하여왔다. 아마도 실험자료를 구성하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다의성은 명사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동사와 형용사와 같은 용언에서도 다의성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문장 내에서 명사와 용언의 기능이 다르며 어순에 따라서 주로 출현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의성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명사와 용언

이 다른 특징을 나타낼 수도 있다.

최근 Pickering과 Frisson(2001)은 안구운동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영어에서 동철동음 동사(homonymous verb)와 중다의미 동사(polysemous verb)의 다의성이 문장에서 해소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들은 동사 다의성의 해소가 명사에 비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는 영어문장의 구조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영어의 경우에는 문장에서 동사의 해석이 뒤따르는 진술에 상당히 의존적이다. 예컨대, 타동사의 경우 목적어가 동사 뒤에 뒤따르게 되며 그 목적어가 동사의 다의성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다의성 해소가 가능한 시점까지 지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사가 문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출현하며 선행하는 목적어에 의해서 동사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동사의 다의성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는 한국어에서 용언 다의성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우선 다의동사를 동철동음 동사와 중다의미 동사로 구분하고, 두 유형의 다의 동사 표상이 심성어휘집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수행되었다. 실험 1에서는 다의동사를 특정의미로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동일한 맥락과 상이한 맥락에서 그 동사를재인하는 데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실험 2에서는 다의동사를 특정의미로 접화시켰을 때, 그 동사를 포함하며 동일 의미로 편향시키거나 상이 의미로 편향시키는 구절의 의미성 판단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실험 1. 다의동사의 재인

방 법

실험 1은 부분적으로 Light와 Carter-Sobell(1970) 그리고 Klein과 Murphy(2001)가 사용한 실험패러다임과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Light와 Carter-Sobell(1970)은 동철동음 명사(homonymous noun)를 한 의미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의미로 사용된 그 명사를 재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학습단계에서 *traffic jam* 이나 *raspberry jam* 과 같은 구절들을 본 후에 재인단계에서 *strawberry jam* 의 jam이 앞에서 나왔던 단어 인지를 재인시키면, 전자의 조건에서 재인 정확도가 떨어졌다. Klein과 Murphy(2001)는 중다의미 명사(polysemous noun)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얻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다의동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실험 1에서는 다의동사를 특정 구절에서 특정 의미로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동일 구절 맥락(동일 구절 조건), 동일 의미로 처리하는 상이 구절 맥락(동일 의미 조건) 그리고 상이 의미로 처리하는 상이 구절 맥락(상이 의미 조건)에서 그 동사를 재인하는 데 미치는 효과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만일 동철동음 동사가 다의명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개의 어휘항목으로 표상되어 있다면, 동일 의미 조건에 비해서 상이 의미 조건에서 재인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동일 맥락 조건에서 성과가 가장 우수할 것은 당연하다. 중다의미 동사의 표상이 동철동음 동사와 다르지 않다면, 동일한 패턴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단일 핵심의미로 표상되어 있다면 동일 의미 조건과 상이 의미 조건에서 재인 성과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참가자 부산대학교에서 교양심리학을 수강하는 학생 50명이 가산점을 받는 조건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재료 우선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v1.0 (2001)에 별개의 어휘항목으로 수록된 동철동음 동사와 하나의 어휘항목에서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다의미 동사를 선별하였다. 그런 다음에 4명의 판단자가 모두 그 의미(의의)와 용법에서 동의하는 동철동음 동사 24개와 중다의미 동사 24개를 선정하였다. 각 동사마다 4개의 구절을 구성하였는데, 2개의 구절은 한 의미(의의)로 편향된 것이고 나머지 2개는 다른 의미(의의)로 편향된 것이었다. 구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맥락을 이루는 단어나 어절들이 서로 다른 구절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4명의 판단자가 모두 동의할 때까지 수정하여 확정하였다. 동철동음 동사와 중다의미 동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전체 실험자료는 부록 참조).

동사	의미	구절
가리다 (동철동음 동사)	차단하다	부채로 얼굴을 가리다. 모자로 햇볕을 가리다.
	선택하다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다. 추첨으로 우승을 가리다.
쏘다 (중다의미 동사)	발사하다	도망자에게 총을 쏘다. 화살을 당기어 쏘다.
	자극하다	고추가 입안을 쏘다. 향내가 코끝을 쏘다.

점화단계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각 동철동음 동사와 중다의미 동사가 특정한 의미(의의)로 해석

되는 48개의 구절을 하나씩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이 구절을 충분히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각 구절을 이해하고 그 구절이 나타내는 장면이나 상황의 심상도를 9점 척도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즉, 키보드 상단 1부터 9까지의 숫자키 중에서 하나를 누르도록 하였다. 재인단계에서는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거나(동일 구절 조건), 동일한 의미로 편향된 새로운 구절이 제시되거나(동일 의미 조건), 아니면 상이한 의미로 편향된 새로운 구절이 제시되었다(상이 의미 조건). 참가자들은 각 구절의 심상도를 평정한 후 구절의 마지막 단어인 동사가 앞에서 제시되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예컨대, 만일 점화단계에서 “부채로 얼굴을 가리다”가 제시되었다면, 동일 구절 조건에서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다”가, 동일 의미 조건에서는 “모자로 햇볕을 가리다”가, 그리고 상이 의미 조건에서는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제시되었다.

점화단계와 재인단계에서 제시되는 구절들의 역할을 역균형화시키기 위해서 6개의 목록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두 의미가 동일 구절 조건과 동일 의미 조건 그리고 상이 의미 조건에 모두 제시되었기 때문에, 특정 구절의 친숙도나 기억용이성 등이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었다.

재인단계의 다의동사 재인에서 “아니오” 반응을 위한 채우개 구절도 48개를 만들었다. 이 경우에도 실험재료로 사용한 표적구절들에 포함된 단어나 어절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재인단계에서는 표적구절 48개와 채우개 구절 48개 등, 총 96개의 구절이 사용되었다.

절차 점화단계에서 참가자들에게는 하나씩 제시되는 구절을 동사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심상도를 평가하여 키보드 상단의 숫자키를 사용하

여 9점 척도에서 평정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또한 48개의 구절이 모두 제시된 후에는 구절이나 어절에 대한 기억검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지시를 주었다. 각 구절은 한 번씩만 제시되었다. 참가자가 심상도를 평정하고나면 500msec 후에 다음 구절이 제시되었다. 표적구절 48개와 채우개 구절 48개의 제시순서는 참가자마다 무선화 하였다.

점화단계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구절들에 대한 심상도 평정과 동사의 재인검사에 대한 지시문을 주었다. 구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가 앞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의 “예” 버튼을, 그리고 제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왼쪽의 “아니오” 버튼을 누르도록 하였다. 재인검사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에 곧바로 재인단계를 실시하였다. 실험프로그램은 슈퍼랩(Superlab)으로 작성되었다. 실험은 IBM 펜티엄 IV 기종을 사용하여 MS-WINDOWS 상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은 각 참가자의 반응속도에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소요된 시간은 대략 20분이었다.

설계 독립변인은 맥락조건(동일 구절 조건, 동일 의미 조건, 상이 의미 조건)과 다의동사 유형(동철동음 동사, 중다의미 동사)인 3 × 2 반복측정 요인설계이며, 종속변인은 재인단계에서 표적동사의 재인정확도이다.

결과 및 논의

실험 1을 실시하기 전에 동사 재인의 전반적인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실험 결과 96개 동사를 재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적동사의 전체 정확 재인율이 50% 이하인 실험 참가자의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

표 1. 맥락조건과 다의동사 유형별 정확재인율

맥락조건 \ 동사유형	동철동음 동사	중다의미 동사
동일 구절	.928(.135)	.938(.080)
동일 의미	.556(.188)	.569(.237)
상이 의미	.447(.258)	.449(.224)

주. 괄호는 표준편차.

다. 이 기준에 따라서 10명의 결과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40명의 재인정확도를 맥락조건과 다의동사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사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 구절 조건에서 동사의 재인이 가장 우수하였다. 즉, 점화단계와 재인단계에서 동일 구절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재인정확도가 거의 천정효과에 가까운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평균 정확재인율 .933). 동사를 동일한 맥락에서 반복 경험하는 것이 그 동사를 재인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동사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 의미 조건에서는 정확재인율이 우연수준(.500)을 조금 상회하고 있으며(평균 정확재인율 .563), 상이 의미 조건에서는 우연수준보다 조금 낮은 재인율을 보이고 있다(평균 정확재인율 .448). 그리고 두 동사 유형간에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맥락조건과 동사 유형을 참가자내 변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은 두 종류를 실시하였는데, 하나는 참가자를 무선변인으로 하는 것(F_1)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자극항목을 무선변인으로 하는 것(F_2)이었다. 그 결과 맥락조건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1(2,78) = 110.79, MS_e = .04498, p = .000; F_2(2,92) = 178.60, MS_e = .01799, p = .000$). 즉, 다의동사의 재인성과는 그 동사를 사전에 동

일한 맥락에서 경험하였느냐, 상이한 맥락에서 동일한 의미로 처리하였느냐, 아니면 상이한 의미로 처리하였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동사 유형의 주효과와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모두 $p > .10$).

동일 구절 조건에서 재인성도가 가장 우수한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었다. 우리가 보다 관심을 두는 조건은 동일 의미와 상이 의미 조건에서 두 유형의 다의동사가 재인정확도에서 차이를 보이겠느냐는 것이었다. 이를 직접 들여다보기 위해서 동일 구절 조건을 제외한 2×2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맥락조건 주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_1(1,39) = 7.83, MS_e = .05597, p = .008; F_2(1,46) = 8.87, MS_e = .02277, p = .005$), 동사 유형의 주효과와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모두 $p > .10$).

실험 1의 결과는 동철동음 동사와 중다의미 동사의 표상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동철동음 명사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하여 동철동음 동사도 심성어휘집에 서로 다른 어휘항목으로 표상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중다의미 동사도 하나의 핵심의미로 표상되기보다는 서로 다른 어휘항목으로 표상되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의미 조건과 상이 의미 조건에서 중다의미 동사의 재인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핵심의미의 단일표상 가정과 위배되는 것이다. 이 결과는 중다의미 명사의 의의들이 심성어휘집에 개별적으로 표상되어있다는 Klein과 Murphy(2001)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실험 1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실험참가자들은 재인단계에서 “예” 반응을 해야 하는 표적구절이 48개이고 “아니오” 반응을 해야 하는 채우

개 구절이 48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아니오” 쪽으로 상당한 반응편향(response bias)을 나타냈다. 평균적으로 “예” 반응은 40%가 되지 못하였으며, “아니오” 반응이 60%를 넘었다. 예비실험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96개 다의동사를 변별하여 재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조금이라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아니오” 반응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객관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실험이 끝난 후 참가자들의 진술은 그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확재인율은 다의동사의 표상을 밝히는데 있어서 그렇게 예민한 지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실험 2에서는 재인과제가 아니라 의미처리를 수반하는 구절이해 과제를 사용하여 다의동사의 표상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실험 2에서는 구절의 의미성 판단과제(sensicality judgment task)를 사용하였으며, 판단 반응시간과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Murphy(1991)는 구절 의미성 판단과제가 개념처리에 대해 매우 민감한 측정치임을 보여주었다.

실험 2. 다의동사 구절의 의미성 판단

실험 2는 부분적으로 Simpson과 Kang(1994)의 결과에 근거하여 계획되었다. Simpson과 Kang(1994)은 단어접화 기법을 사용하여 동철동음 명사의 처리에서 억제효과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예컨대 동철동음어인 BANK를 접화어로 제시한 후에 SAVE와 같은 표적어의 명명시간을 측정하였다. 나중에 다시 BANK가 접화어로 주어지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표적어가 제시되었다. 다의어(BANK)를 처음 제시했을 때 활성화되

었던 의미와 관련된 표적어(예컨대, MONEY)이거나, 다른 의미와 관련된 표적어(예컨대, RIVER)이었다. 그 결과 동일 의미 표적어는 명명시간이 촉진되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상이 의미 표적어는 오히려 지연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Simpson과 Kang(1994)은 다의어의 한 의미가 처리되게 되면 다른 의미는 억제되는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실험 2에서는 다의동사를 특정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접화구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뒤이어 제시하는 표적구절의 의미성(sensicality)을 판단하는 데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표적구절에서는 다의동사가 접화구절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거나(동일 의미 조건) 다른 의미로 해석되도록 편향되었다(상이 의미 조건). 실험의 결과에 근거하여 동일 구절 조건은 제외하였다. 예컨대, 접화구절로 “부채로 얼굴을 가리다”가 제시되고 참가자가 그 의미성을 판단하고나면, 다음 시행에서 “모자로 햇볕을 가리다”(동일 의미 조건) 또는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다”(상이 의미 조건)가 표적구절로 제시되었다. 이 과제에서의 초점은 표적구절의 의미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의동사 의미의 일치성 여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점이다.

동철동음 동사의 경우, 접화구절과 표적구절의 동사가 동일한 의미로 처리될 때 반응시간이 빨라지거나 최소한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상이한 의미로 처리될 때는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험 1에서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만일 중다의미 동사도 동철동음 동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상되어 있다면 유사한 결과패턴을 보일 것이다. 반면 단일 핵심의미로 표상되어 있다면 상이한 의미(의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표적구절에 대한 반응시간이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방 법

참가자 부산대학교에서 교양심리학을 수강하는 학생 53명이 가산점을 받는 조건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재료 실험 1에서 사용한 표적구절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접화구절-표적구절 쌍에서 다의동사의 의미들을 역균형화 시키기 위하여 4개의 목록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예컨대, 한 목록에서 만일 “부채로 얼굴을 가리다”가 접화구절로 제시된다면, 동일 의미 조건에서는 “모자로 햇볕을 가리다”가 그리고 상이 의미 조건에서는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제시되었다. 한편 다른 목록에서 만일 “추첨으로 우승을 가리다”가 접화구절로 제시된다면, 이제 동일 의미 조건에서는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그리고 상이 의미 조건에서는 “모자로 햇볕을 가리다”가 제시되는 방식이었다. 48개 구절 쌍으로 구성된 각 목록에서 24개는 동철동음 동사 쌍이며 나머지 24개는 중다의미 동사 쌍이다. 그리고 각 다의동사 유형에서 12쌍은 동일 의미 조건에 그리고 나머지 12쌍은 상이 의미 조건에 할당되었다.

실험참가자들에게는 접화구절-표적구절 48쌍 외에도 144개의 채우개 구절 쌍도 제시하였다. 채우개 구절 쌍도 각각 동일한 동사를 포함한 구절들인데, 일의동사를 사용하였으며 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의미성이 없는 구절이었다. 즉, 48개 채우개 구절 쌍에서는 첫 번째 구절이 의미성을 갖는 반면(“잠자던 사자를 깨우다”), 두 번째 구절은 의미성이 없다(“경건하게 불공을 깨우다”). 다른 48쌍에서는 첫 번째 구절의 의미성이 없는 반면(“조상을 경건하게 똥다”), 두 번째 구절은 의미성을 갖는다(“머리를 양갈래로 똥다”). 그리고 나머지 48쌍에서는 두 구절이 모두 의미

성을 갖지 않았다. 따라서 첫 번째 구절의 의미성 여부가 두 번째 구절의 의미성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전혀 없다. 의미성이 없는 채우개 구절을 구성할 때, 동시에 선행하는 두 어절만을 가지고는 구절의 의미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를 처리해야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절차 실험참가자들에게 화면 중앙에 하나씩 제시되는 구절의 의미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구절의 수가 모두 384개이고, 2개씩 쌍을 이루는데, 한 쌍을 이루는 두 구절은 동일한 동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각 구절에 대해서 그 의미성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요구하였다. “예” 반응은 오른손 검지로 “/” 키를, “아니오” 반응은 왼손 검지로 “z” 키를 누르도록 하였다. 지시문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0회의 연습시행을 실시하였다. 연습시행에서는 참가자의 반응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다. 연습시행이 모두 끝나면 질문을 받은 후에 본 시행을 시작하였다. 본 시행에서는 반응에 대한 피드백을 주지 않았다.

각 시행에서 우선 직사각형 박스가 500msec 제시된 후에(일종의 고정점으로 작용하였다), 그 박스 속에 구절이 제시되었다. 반응시간은 구절이 제시될 때부터 반응키를 누를 때까지의 시간이었다. 시행간 간격은 500msec이었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실험프로그램은 슈퍼랩(Superlab)으로 작성하였다. 실험은 IBM 펜티엄 IV 기종을 사용하여 MS-WINDOWS 상에서 수행되었다. 192개 구절 쌍의 제시순서는 참가자마다 무선회 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30분이었다.

설계 독립변인은 의미 조건(동일 의미 조건 상

이 의미 조건)과 다의동사 유형(동철동음 동사, 중다의미 동사)의 2 × 2 반복측정 요인설계이며 종속변인은 표적구절의 의미성 판단 정확도와 반응시간이었다.

결과 및 논의

반응시간 분석에 앞서서 전체 실험참가자들의 표적구절 의미성 판단 정확도를 정리하여 의미 조건과 동사유형 별로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전반적으로 구절 의미성 판단의 정확도는 높았다. 의미 조건에서는 상이 의미 조건보다 동일 의미 조건에서 정확도가 다소 높았으며, 동사 유형에서는 동철동음 동사보다 중다의미 동사에서 정확도가 조금 높았다.

두 변인을 참가자내 변인으로 하여 의미성 판단 정확도에 대해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미조건의 주효과가 F_1 에서 유의미 하였으며, F_2 에서는 경향성이 나타났다($F_1(1,52) = 25.157, MS_e = .004684, p = .000; F_2(1,46) = 3.912, MS_e = .006315, p = .054$). 다의동사가 동일한 의미로 처리될 때, 표적구절의 의미성 판단이 더 정확하였다. 그런데 동사유형의 주효과도 F_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_1(1,52) = 6.559, MS_e = .01056, p = .013$). 이 결과는 예상치 않았던 것인데, 아마도 중다의미 동사 구절이 동철동

음 동사 구절보다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상호작용은 없었다($p > .10$). 점화구절의 의미성을 잘못 판단한 시행을 제외하고 표적구절 의미성 판단의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도 위와 동일하였다.

반응시간을 분석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오반응이 많은 실험참가자의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네 실험조건 각각에서 점화구절의 의미성 판단이 틀렸거나 표적구절의 판단이 틀렸거나 아니면 두 구절 모두 틀린 시행이 25%가 넘는 참가자는 실험에 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반응실수를 지나치게 많이 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기준을 만족시킨 참가자는 모두 29명이었다. 둘째, 그 29명 중에서 평균 반응시간이 참가자들의 전체 평균 반응시간보다 ± 2 표준편차를 넘어서는 2명의 참가자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반응시간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의 수는 모두 27명이었다. 셋째, 각 참가자의 반응에서 점화구절이든 표적구절이든 오반응이 있는 시행의 반응시간도 제외하였다. 특히 점화구절에서 오반응을 범한 경우에는 실험처치에 해당하는 점화구절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세 번째 기준에 의해 한 참가자의 반응에서 제외된 데이터는 대략 10% 정도이었다³⁾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27명 참가자의 반응시간을 조건별로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전반적으로 점화구절보다 표적구절의 반응시간이 빠르다. 점화구절과 표적구절 반응시간간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동일 의미 조건에서 동철동음 동사는 130msec, 중다의미 동사는 41msec의 차이를

표 2. 의미조건과 다의동사 별 표적구절의 의미성 정확 판단율

의미조건 \ 동사유형	동철동음 동사	중다의미 동사
동일 의미	.910(.111)	.934(.084)
상이 의미	.851(.112)	.899(.100)

주. 괄호는 표준편차.

3) 점화구절과 표적구절 어느 것에서든 오류를 범한 반응을 반응시간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표적구절의 실제 오류율은 대략 5%가 된다. 그리고 오류율은 네 실험조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의미조건과 동사유형별 의미성 판단 반응시간(msec)

의미 \ 동사	점화구절		표적구절		축진량	
	동철동음 동사	중다의미 동사	동철동음 동사	중다의미 동사	동철동음 동사	중다의미 동사
동일 의미	1,301 (378)	1,259 (262)	1,171 (248)	1,218 (304)	130	41
상이 의미	1,314 (280)	1,284 (249)	1,345 (264)	1,194 (263)	-31	90

주. 괄호는 표준편차.

보이고 있다. 반면에 상이 의미 조건에서 동철동음 동사는 -31msec, 중다의미 동사는 90msec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점화구절 반응시간에서 의미조건과 동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복측정 이요인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점화구절의 결과를 보면, 동철동음 동사가 포함된 구절의 반응시간(1,308msec)이 중다의미 동사 구절(1,272msec)보다 조금 느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변량분석 결과에서는 주효과이든 상호작용이든 어느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만일 표적구절에서 반응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단순히 그 구절들의 독자적 처리용이성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표적구절의 반응시간을 의미조건과 동사유형에 따라 변량분석하였다. 의미조건과 동사유형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모두 $p > .10$),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F_1(1,26) = 11.896$, $MS_e = 22401.977$, $p = .002$; $F_2(1,46) = 4.655$, $MS_e = 46593.631$, $p = .036$]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동철동음 동사의 경우에는 상이 의미 조건(1345msec)에 비해서 동일 의미 조건에서의 반응시간(1,171msec)이 174msec 이상 빠르다. 반면에

중다의미 동사의 경우에는 두 점화수준 사이에 유의하지 않은 24msec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며, 그것도 동일 의미 조건보다 상이 의미 조건에서 더 빠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호작용 효과에 근거하여 단순 주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철동음 동사에서는 의미조건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반면에 [$F_1(1,26) = 11.63$, $MS_e = 35275.499$, $p = .002$; $F_2(1,23) = 5.637$, $MS_e = 52557.97$, $p = .026$], 중다의미 동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상호작용 효과는 동철동음 동사가 포함된 표적구절의 의미성 판단시간이 의미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각 조건별로 점화량을 가지고 변량분석을 실시해보았다. 이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얻어졌다. 즉, 의미조건과 동사유형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모두 $p > .10$),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은 F_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_1(1,26) = 6.980$, $MS_e = 42387.587$, $p = .014$], F_2 는 경향성을 나타냈다($p = .135$).

실험 2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동철동음 동사와 중다의미 동사는 심성어휘집에 서로 다르게 표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자의 경우 별개의 어휘항목들로 표상되어 있는데, 점화구절에서

동사를 특정 의미로 처리함으로써 그 의미(즉, 그 의미에 해당하는 어휘항목)는 활성화될 유지하는 반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의미는 억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이어서 제시되는 표적구절이 그 동사를 동일 의미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응시간의 촉진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상이 의미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억제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다의미 동사의 경우에는 점화조건에 관계없이 표적구절의 의미성 판단시간이 점화구절에 비해서 다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다의미 동사의 핵심의미가 존재하며, 이 핵심의미로 인해서 동일 의미 조건이든 상이 의미 조건이든 촉진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이 있다. 실험 2의 의미성 판단시간 결과는 실험 1의 재인 결과와 상치된다. 실험 1에서는 점화조건에 관계없이 두 유형의 다의동사를 재인하는 성과에서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동사유형에 관계없이 동일 의미 조건에서의 성과가 상이 의미 조건에서의 성과보다 우수하였다. 실험 1의 결과는 두 유형의 다의동사의 표상이 다르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인과제가 상당히 어려워 실험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성과가 우연수준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에 그치는 일종의 바닥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아니오” 반응으로 심하게 반응편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의동사의 표상을 밝히는 데 적절한 지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종합논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종합논의

이 연구는 한국어에서 용언 다의성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우선 다의동사를 동철동음 동사와 중다의미 동사로 구분하고, 두 유형의 다의동사 표상이 심성어휘집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수행되었다. 실험 1에서는 다의동사를 특정 의미로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동일한 맥락과 상이한 맥락에서 그 동사를 재인하는 데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실험 2에서는 다의동사를 특정 의미로 점화시켰을 때, 그 동사를 포함하며 동일 의미로 편향시키거나 상이 의미로 편향시키는 구절의 의미성 판단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실험 1의 재인 결과는 동철동음 동사와 중다의미 동사의 표상이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화조건 간에는 재인성차가 차이를 보이는 반면, 두 다의동사 유형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일구절 조건에서는 재인성차가 매우 우수한 반면(평균 정확 재인율 = .933), 동일 의미 조건(.563)은 우연수준(.500)을 약간 상회하고 상이 의미 조건(.448)은 우연수준보다 약간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실험 1의 차이검증에서 동일 의미 조건과 상이 의미 조건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네 실험조건(두 의미조건과 두 동사유형)에서의 재인성차는 모두 우연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동철동음 동사: 동일 의미 조건 $t(39) = 1.896, p > .05$; 상이 의미 조건 $t(39) = 1.304, p > .10$. 중다의미 동사: 동일 의미 조건 $t(39) = 1.837, p > .05$; 상이 의미 조건 $t(39) = .881, p > .10$). 다시 말해서 다의동사를 특정 의미로 처리한 것이 나중에 그 동사를 재인하는 데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일구절 조건에서의 성과가 매우 우수하였던 것은 동사를 재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사에 앞서 제시된 두 어절의 맥락을 재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2-4 음절로 이루어진 동사의 으뜸꼴들을 실험자료로 사용하였다(예컨대, *물다, 가리다, 일으키다* 등). 일반적으로 동사를 으뜸꼴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표적자극인 동사 자체의 친숙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모든 동사가 동일한 음절("다")로 끝난다는 점에서 표기와 발음상에서도 매우 유사하였다. 따라서 96개 다의동사를 변별하여 정확하게 재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며, 의미점화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처치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정 의미의 점화가 다의동사 구절의 의미성 판단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하였던 실험 2의 결과는 중다의미 동사가 동철동음 동사와 다르게 표상되어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다의미 동사의 경우, 점화시킨 의미와 표적구절의 의미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의미성 판단시간이 동일하였다. 반면 동철동음 동사의 경우에는 점화 의미와 표적의미가 동일한 경우에는 반응시간에서 촉진효과가 나타나고 상이한 경우에는 억제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에만 근거한다면, 동철동음 동사의 의미들은 심성어휘집에 개별적으로 표상되어 상호 억제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다의미 동사의 의미들은 하나의 핵심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실험 1의 재인검사 결과와 실험 2의 의미성 판단시간 결과가 일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결과들만을 가지고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⁴⁾

4) 한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제안을 해주었다: 실험 1의 재인과제는 지연된 기억 표상을 반영하며 실험 2의 점화과제는 비교적 즉각적인 처리과정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실험 1과 2의 차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다의미 명사의 표상에 관한 선행 연구들도 일치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Williams(1992)는 동철동음 명사가 제시되면 맥락무관 의미의 활성화가 신속하게 소멸되거나 억제되는 반면에, 중다의미 명사에서는 맥락무관 의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활성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중다의미 명사의 의의들이 동철동음 명사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표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에 Klein과 Murphy(2001)는 두 유형의 다의명사 표상이 다르지 않다는 결과들을 얻고 있다. 현재로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다의동사의 표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재인과제와 의미성 판단과제를 사용한 두 실험을 실시하였으나, 두 실험의 결과는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재인과제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고려할 때, 두 유형의 다의동사가 심성어휘집에 서로 다르게 표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들이 있다.

첫째, 언어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구분되어온 동철동음 동사와 중다의미 동사들을 구분하여왔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이는 처리과정의 지연시간에 따른 표상 활성화의 변화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실험 1에서 점화단계와 재인단계 사이에는 대략 10분 정도의 시간간격이 있었다. 실험 2에서 점화구절과 표적구절 사이에는 대략 2-2.5초 정도의 시간간격이 있었다. 따라서 실험 1에서 표적구절이 제시될 시점에는 다의동사 의미의 활성화가 이미 기저선 수준으로 되돌아간 반면에, 실험 2에서는 의미의 활성화가 기저선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2-2.5초도 어휘처리에 있어서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 문제도 향후 연구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겠다.

v1.0(2001)에 근거하여 다의동사들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다의동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4명의 판단자 사이에 의미들이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것인지에 있어서 많은 이견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순환론적인 주장일 수도 있겠으나, 경험적 연구에 앞서서 두 유형의 다의동사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⁵⁾ 반대로 관련 의미인가 아니면 무관한 의미인가의 문제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Klein과 Murphy(2001)는 의미 관련성(semantic relatedness)과 의미 중복(semantic overlap)을 구분하고 있다. 중다의미 동사의 의미들이 관련된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들이 반드시 유사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점화효과는 의미 관련성보다는 의미 중복의 정도에 달려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둘째, 의미들의 사용빈도 문제이다. 사용빈도는 거의 모든 인지과제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Rayner와 동료들은(Duffy, Kambe, & Rayner, 2001; Duffy, Morris, & Rayner, 1988; Rayner, Pacht, & Duffy, 1994) 다의어 의미의 사용빈도에 따라서 다의성 해소과정이 달라진다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김채리와 신현정, 1996; 정운심과 신현정, 1992 참조). 의미들의 사용빈도가 동일한 다의어의 경우, 중성맥락에서는 두 의미가

모두 활성화되어 경쟁을 벌인다. 한 의미로 편향시키는 맥락이 다의어에 앞서 제시되면, 의도한 의미의 활성화가 선행된다. 반면 의미들의 사용빈도가 차이나는 다의어의 경우, 중성맥락에서는 일차의미가 주도적으로 활성화된다. 맥락이 이차 의미로 편향시키면, 그 의미도 활성화되어 일차 의미와 경쟁하게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다의동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빈도를 제어하지 못하였다. 단지 4명의 판단자가 모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동사들을 선정하였다. 다의동사의 표상은 그 사용빈도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셋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다의동사의 으뜸꼴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사를 으뜸꼴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표적자극 자체의 친숙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의동사 의미들의 점화효과를 규명할 기저선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못하였다. 특정 의미의 점화가 다의동사의 처리를 촉진하는지 아니면 억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어 길이와 빈도 등과 같은 여러 가외변인들에서 대응되는 일의어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단지 다의어 유형에 따라서 동일 의미 조건과 상이 의미 조건에서 차이가 나는지의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향후 이러한 여러 제한점들을 모두 제거한 후속연구들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2001). 표준국어대사전 v1.0. 서울: 두산동아.
김채리·신현정 (1996). 문장맥락이 구체명사의 의미활

5) 동철동음 동사와 중다의미 동사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다의미 동사 의미(sense)들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 논문의 한 심사위원은 의미들간의 관계를 “문자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의 관계로 그리고 다른 심사위원은 “지각적 의미”와 “환유적 의미”의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안을 해주었다. 이 논제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여기서는 그 관계가 어떤 것이든지 의미들간의 관계 여부만을 다루었다.

- 성화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창립 50주년 '96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25-336.
- 정운심 · 신현정 (1992). 한글 다의단어의 의미적 활성화와 맥락효과. 제4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인간과 기계와 언어, 413-422.
- Binder, K. S., & Rayner, K. (1998). Contextual strength does not modulate the subordinate bias effect: Evidence from eye fixations and self-paced reading.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5, 271-276.
- Cruse, A. D. (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ane, P. D. (1988). Polysemy and cognition. *Lingua*, 75, 325-361.
- Duffy, S. A., Kambe, G., & Rayner, K. (2001). The effect of prior disambiguating context on the comprehension of ambiguous words: Evidence from eye movements. In D. S. Gorfein (Ed.), *On the consequences of meaning selection*(pp. 27-4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uffy, S. A., Morris, R. K., & Rayner, K. (1988). Lexical ambiguity and fixation time in reading.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7, 429-446.
- Fodor, J. A. (1983). *Modularity of mind*. Cambridge, MA: MIT Press.
- Gerrig, R. J. (1986). Process and products of lexical access.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 187-195.
- Hino, Y., & Lupker, S. J. (1996). Effects of polysemy in lexical decision and naming: An alternative to lexical access accou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22, 1331-1356.
- Kellas, G., & Vu, H. (1999). Strength of context does modulate the subordinate bias effect. *Psychonomic Bulletin and Review*, 6, 511-517.
- Klein, D. E., & Murphy, G. L. (2001). The representation of polysemous word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5, 259-282.
- Levelt, W. J. M. (1989). *Speaking*. Cambridge, MA: MIT Press.
- Light, L. L., & Carter-Sobell, L. (1970). Effects of changed semantic context on recognition behavior.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9, 1-11.
- Lyons, J. (1981). *Language and linguistic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tin, C., Vu, H., Kellas, G., & Metcalfe, K. (1999). Strength of discourse context as a determinant of the subordinate bias effect.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52A, 813-839.
- McClelland, J. L. (1987). The case for interactionism in language processing. In M. Coltheart (Ed.), *Attention and performance XII: The psychology of reading* (pp. 3-36). Hillsdale, NJ: Erlbaum.
- Murphy, G. L. (1991). Meanings and concepts. In P. Schwanenflugel (Ed.), *The psychology of word meanings* (pp. 11-35). Hillsdale, NJ: Erlbaum.
- Murphy, G. L. (1997). Polysemy and the creation of novel word meanings. In T. B. Ward, S. Smith, & J. Vaid (Eds.), *Creative thought: An investigation of conceptual structures and processes* (pp. 235-26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unberg, G. (1979). The non-uniqueness of semantic solutions: Polysemy. *Linguistics and Philosophy*, 3, 143-184.
- Onifer, W., & Swinney, D. A. (1981). Accessing lexical ambiguities during sentence comprehension: Effects of frequency of meaning and contextual bias. *Memory & Cognition*, 15, 225-236.
- Paul, S. T., Kellas, G., Martin, M., & Clark, M. B. (1992). The influence of contextual features on the activation of ambiguous word meaning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 and Cognition*, 18, 703-717.
- Pickering, M. J., & Frisson, S. (2001). Processing ambiguous verbs: Evidence from eye move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7, 556-573.
- Rayner, K., Pacht, J. M., & Duffy, S. A. (1994). Effects of prior encounter and global discourse bias on the processing of lexically ambiguous word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3, 527-544.
- Rice, S. A. (1992). Polysemy and lexical representation: The case of three English prepositions. In *Proceedings of the Fourteenth Annual Conference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pp. 89-94). Hillsdale, NJ: Erlbaum.
- Rodd, J., Gaskell, G., & Marslen-Wilson, W. (2002). Making sense of semantic ambiguity: Semantic competition in lexical acces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6, 245-266.
- Ruhl, C. (1989). *On monosemy: A study in linguistic semantics*. Albany: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 Seidenberg, M. S., Tanenhaus, M. K., Leiman, J. M., & Bienkowski, M. (1982). Automatic access of the meanings of ambiguous words in context: Some limitations of knowledge-based processing. *Cognitive Psychology*, 14, 489-537.
- Simpson, G. B. (1981). Meaning dominance and semantic context in the processing of lexical ambiguity.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0, 120-136.
- Simpson, G. B., & Kang, H. (1994). Inhibitory processes in the recognition of homograph meanings. In D. Dagenbach & T. H. Carr (Eds.), *Inhibitory processes in attention, memory, and language* (pp. 359-378).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impson, G. B., & Kreuger, M. A. (1991). Selective access of homograph meaning in sentence context.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0, 627-643.
- Swinney, D. A. (1979). Lexical access during sentence comprehension: (Re)consideration of context effect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8, 645-659.
- Tabossi, P. (1988a). Accessing lexical ambiguity in different types of sentential context.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7, 324-340.
- Tanenhaus, M. K., Leiman, J. M., & Seidenberg, M. S. (1979). Evidence for multiple stages in the processing of ambiguous word in syntactic context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8, 427-441.
- Tuggy, D. (1993). Ambiguity, polysemy, and vagueness. *Cognitive Linguistics*, 4, 273-290.
- Van Petten, C., & Kutas, M. (1987). Ambiguous words in context: An event-related potential analysis of the time course of meaning activat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6, 188-208.
- Williams, J. N. (1992). Processing polysemous words in context: Evidence for interrelated meanings.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21, 193-218.
- Zgusta, L. (1971). *Manual of lexicography*. The Hague: Mouton.

1 차원고접수 : 2004. 5. 19

2 차원고접수 : 2004. 6. 14

최종게재결정 : 2004. 6. 23

Representation of Korean ambiguous verbs

Hyun Jung Shin Mi Young Choi Min Gyeong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wo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whether meanings of Korean ambiguous verbs are represented distinctly or as single core meanings in the mental lexicon. Homonymous verbs that have unrelated meanings and polysemous verbs that have related senses were used as experimental stimuli. In Experiment 1, after all the ambiguous verbs were processed in specific phrase contexts, recognition performance of the verbs were measured in the same phrase context, the same meaning(sense) context, and the different meaning(sense) context. In Experiment 2, sensality judgment data of the phrases that contained the ambiguous verbs were obtained just after the verbs were processed as specific meanings(senses). The results of Experiment 1 suggested that meanings(senses) of both ambiguous verbs might be represented as distinct lexical entries, whereas Experiment 2 resulted in the data suggesting the single core representation in the case of the polysemous verbs. Considering the experimental material and several methodological problems drove us to a tentative conclusion that meanings of the homonymous verbs are represented as distinct lexical entries while those of the polysemous verbs are represented as common core meanings. Som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problem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representation of ambiguous nouns, and the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Keywords: homonymous verb, polysemous verb, mental lexicon, lexical representation

부 록

실험 1과 2에 사용된 동철동음 동사 (homonymous verb)

동사	의미	구절	구절
가리다	차단하다	부채로 얼굴을 가리다	모자로 햇볕을 가리다
	구별하다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다	추첨으로 우승을 가리다
감다	씻다	개울에서 먹을 감다	삼푸로 머리를 감다
	두르다	상처에 붕대를 감다	실폐에 털실을 감다
개다	섞다	밀가루 반죽을 개다	한약을 잔물에 개다
	접쳐 접다	아침에 이불을 개다	빨래를 반듯하게 개다
거르다	체로 받다	막걸리를 걸죽하게 거르다	체로 불순물을 거르다
	건너뛰다	자주 끼니를 거르다	신문발행을 하루씩 거르다
그리다	생각하다	머나먼 고향을 그리다	타지에서 부모님을 그리다
	표현하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다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다
달다	측정하다	신체검사에서 체중을 달다	저울로 무게를 달다
	붙이다	배에 돛을 달다	책에 제목을 달다
따르다	좋아하다	선배를 친형처럼 따르다	개가 사람을 따르다
	액체를 붓다	술을 조심조심 따르다	컵에 물을 따르다
떨다	흔들다	손을 부들부들 떨다	심하게 목소리를 떨다
	떼어내다	옷에서 먼지를 떨다	시골에서 알밤을 떨다
뜨다	옮기다	중병으로 이승을 뜨다	야밤에 고향을 뜨다
	떠내다	그물로 물고기를 뜨다	밭을 한술 뜨다
말리다	중단시키다	격렬한 싸움을 말리다	음주 운전을 말리다
	건조시키다	젖은 외투를 말리다	고추를 바짝 말리다
말다	넘겨 받다	중요한 임무를 말다	혼자서 집안살림을 말다
	냄새를 느끼다	마당에서 봄향기를 말다	산에서 흙냄새를 말다
매다	엮어 있다	구두끈을 단단히 매다	소를 말뚝에 매다
	잡풀을 뽑다	논에서 김을 매다	아낙네가 보리밭을 매다
물다	입에 넣다	애기가 젖병을 물다	호랑이가 사슴을 물다
	대가를 치르다	주인에게 외상값을 물다	비싼 이자를 물다
받다	주는 것을 가지다	예쁜 생일선물을 받다	월말에 봉급을 받다
	부딪히다	자동차가 난간을 받다	소뿔이 엉덩이를 받다
베다	머리를 바치다	딱딱한 베개를 베다	어머니의 무릎을 베다
	자르거나 끊다	낮으로 벼를 베다	뜯으로 판자를 베다
빌다	청하다	달님에게 소원을 빌다	가해자가 용서를 빌다
	얻다	거지가 양식을 빌다	친구에게 돈을 빌다
빨다	입 속으로 넣다	빨대로 주스를 빨다	나비가 꿀을 빨다
	물에 씻다	넷가에서 수건을 빨다	세탁기로 운동화를 빨다
쓰다	글자를 적다	붓으로 글씨를 쓰다	방명록에 이름을 쓰다
	얼굴에 얹다	머리에 가발을 쓰다	얼굴에 마스크를 쓰다
조르다	단단히 죄다	허리띠를 단단하게 조르다	살인범이 목을 조르다
	요구하다	애인에게 결혼을 조르다	용돈을 달라고 조르다
차다	몸에 지니다	허리에 칼을 차다	손목에 시계를 차다
	발로 세계 건드리다	왼발로 계기를 차다	공을 힘껏 차다
채우다	풀어지지 않게 하다	문에 자물쇠를 채우다	엉덩이에 기저귀를 채우다
	빈 곳을 메꾸다	좌석을 빈틈없이 채우다	바퀴에 공기를 채우다
켜다	불을 붙이다	성냥으로 촛불을 켜다	리모콘으로 텔레비전을 켜다
	베거나 자르다	홍보가 박을 켜다	동나무를 힘차게 켜다
타다	뾰를 받다	경연대회에서 상을 타다	다음 달에 적금을 타다
	탈 것에 오르다	급하게 지하철을 타다	원숭이처럼 나무를 타다
태우다	불을 붙이다	종이를 마구 태우다	밭을 시커멓게 태우다
	탈 것에 타게 하다	승객을 차에 태우다	아이를 어깨에 태우다

실험 1과 2에 사용된 중다의미 동사(polysemous verb)

동사	의미	구절	구절
가지다	소유하다 별이다	최고급 자동차를 가지다 연초에 기자회견을 가지다	집을 여러 채 가지다 추석에 가족모임을 가지다
감추다	숨기다 사라지다	벽장에 돈을 감추다 협의자가 중적을 감추다	서랍에 일기장을 감추다 반달곰이 자취를 감추다
고치다	수리하다 변경하다	고장난 시계를 고치다 상호를 우리말로 고치다	정비소에서 차를 고치다 국회에서 법을 고치다
기르다	키우다 단련하다	취미로 화초를 기르다 강한 인내심을 기르다	자식을 강하게 기르다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다
기울이다	비스듬하게 하다 주의를 한 곳에 모으다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다 작품에 심혈을 기울이다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다 관심을 한곳에 기울이다
까먹다	껍질을 벗겨 먹다 잊어버리다	오렌지를 맛있게 까먹다 중요한 약속을 까먹다	공원에서 도시락을 까먹다 배우가 대사를 까먹다
꼬다	한 가닥이 되게 비비다 몸을 틀다	헛간에서 새끼를 꼬다 건방지게 다리를 꼬다	명주로 실을 꼬다 온몸을 비비 꼬다
깨다	꼬챙이에 찢리 꽃다 자세히 다 알다	실을 마늘에 깨다 속사정을 훤히 깨다	꽃감을 꼬챙이에 깨다 고전을 두루 깨다
나누다	분할하다 인사나 대화를 하다	사과를 세 쪽으로 나누다 서로 인사를 나누다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담그다	액체 속에 집어넣다 음식을 만들어 익히다	시냇물에 발을 담그다 김치를 맛있게 담그다	표본을 알코올에 담그다 메실로 술을 담그다
때우다	깨진 곳을 메우다 간단히 끼니를 넘기다	구멍 난 항아리를 때우다 점심을 대충 때우다	충치를 백금으로 때우다 고마움을 말로 때우다
버리다	필요 없는 것을 없애다 망치다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다 흙탕물로 옷을 버리다	낭비하는 습관을 버리다 담배로 몸을 버리다
빚다	음식을 만들다 사건을 만들다	추석에 송편을 빚다 말실수로 물의를 빚다	잡쌀로 술을 빚다 공사가 차질을 빚다
쏘다	날아가게 하다 찌르는 듯 자극하다	도망자에게 총을 쏘다 고추가 입안을 쏘다	화살을 당기어 쏘다 항내가 코끝을 쏘다
일으키다	일어나게 하다 일을 벌이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키다 조폭이 사회문제를 일으키다	느릿느릿 몸을 일으키다 반대파가 혁명을 일으키다
입다	옷을 몸에 걸치다 도움이나 은혜를 받다	화사한 봄옷을 입다 선생님께 은혜를 입다	낡은 청바지를 입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다
지키다	잃지 않도록 살피다 상태를 유지하다	개가 집을 지키다 한없이 침묵을 지키다	군인이 조국을 지키다 힘겹게 체면을 지키다
짚다	바깥 면에 몸을 대다 요량해서 짐작하다	기다란 지팡이를 짚다 영똥하게 헛다리를 짚다	손으로 바닥을 짚다 범인을 제대로 짚다
찌르다	뾰족한 것을 들이대다 날카롭게 건들이다	주사기를 엉덩이에 찌르다 한 마디로 정곡을 찌르다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다 음악이 가슴을 찌르다
차리다	가다듬다 갖추어 벌이다	비로소 기운을 차리다 어렵게 회사를 차리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다 뒷방에 신방을 차리다
치르다	주어야 할 돈을 내주다 일을 겪다	아파트 잔금을 치르다 날마다 시험을 치르다	비싼 물건값을 치르다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다
파다	구멍을 만들다 꼴똥히 집중하다	마당에 우물을 파다 사건의 진상을 파다	단단한 땅을 파다 전공분야를 깊이 파다
헤아리다	수량을 세다 미루어 짐작하다	지금통의 동전을 헤아리다 일의 고충을 헤아리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헤아리다 어머니의 심중을 헤아리다
흘리다	슬쩍 전하다 잘못 빠뜨리다	언론에 정보를 흘리다 비스에 지갑을 흘리다	입가에 조소를 흘리다 바닥에 물을 흘리다